

자메이카의 언어적 혼종성*

김경희(울산대 카리브 해 연구센터)**

- I. 서론
- II. 언어 정책과 공용어
- III. 크레올어와 영어의 대립과 공존
- IV. 결론

I. 서론

언어는 문화의 핵심적인 표현 양식이다. 그래서 어떤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며 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국내에서 자메이카는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자메이카에서는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영어만을 쓰는 화자는 소수이다. 또 다른 언어인 크레올어가 수 세기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언어는 아직 공식적인 명칭도 없는 언어이다. 자메이카어(Jamaican), 자메이카 크레올어(Jamaican Creole), 자메이카 파트와어(Jamaican patwa 혹은 patois)¹⁾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주로 구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 언어만을 사용하는 화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자메이카에서 관찰되는 것은 영어를 쓰면서 크레올어를 섞

* 이 논문은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M2009).

** Kyung-Hee Kim(Ulsan University, The Center for Caribbean Studies, moa@kim@mail.ulsan.ac.kr), "Hybrid Aspects of Jamaican Language".

1) 이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방언', '속어'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크레올어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아이티에서도 자국의 크레올어를 이 용어로 부른다.

어 쓰고 크레올어를 쓰면서 영어를 섞어 쓰는 현상이다.

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 해 지역은 상이한 문화와 인종이 뒤섞여 새로운 토착 문화를 창출해 낸 곳으로 모든 면에서 혼종적인(hybrid) 양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혼종적인 양상이 어떻게 관찰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가를 진단해 봄으로써 자메이카의 문화 현상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II장에서는 자메이카의 언어 정책을 공용어인 영어의 보급과 확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크레올어와 영어의 대립과 공존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분석을 근거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조심스런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II. 언어 정책과 공용어

II.1. 역사적 배경

영국인들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바르바도스(Barbados)에 처음으로 정착지를 마련하였는데, 이 당시 유럽 시장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바르바도스에서도 1640년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사탕수수를 대규모로 경작하였다. 면적이 바르바도스의 25배에 달하는 자메이카도 사탕수수를 경작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영국과 그 밖의 지역에 설탕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지가 되었다. 1664년 정부 주도의 토지에서 시작이 되서 1673년경에는 57개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생겼고 1755년경에는 400여개에 달했다. 설탕산업이 자메이카를 형성해나가는 수단이 되었으며, 18세기 대영제국 부의 원천이었으며 세계에서 주도적인 설탕 생산지였다(Mordecai and Mordecai 2001, 9).

18세기 초부터 이후 200년간 자메이카에서는 단일 경작체제를 유

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카리브해의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커피나, 목재, 염료 및 코코아도 경작되었지만 설탕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설탕 생산과 수출이 가져온 부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설탕과 노예제는 식민지 정착자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인과 노예는 다같이 토지를 개척하였다. 영국 정부와 자메이카 의회는 이러한 개척과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영국 출신의 백인들은 자메이카에서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18세기 초에 이미 40,000명의 노예들이 있었다. 같은 세기 중엽에는 130,000명에 이르렀다. 19세기에는 그 수가 두 배에 이르렀는데, 백인은 15,000명으로 1:20의 비율을 보였다. 노예들은 주로 지금의 시에라 레온(Sierra Leone)에서 앙골라(Angola)에 이르는 노예 요새들로부터 유입되었다. 자메이카는 카리브와 중남미 노예무역의 집산지이자 시장을 이루었으며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자메이카 내에서 구매되었다(Mordecai and Mordecai 2001, 10).

수적인 불균형과 노예 제도의 잔혹성으로 인하여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했고 이를 막기 위해 백인들은 법률과 관습을 만들어나갔다. 170여 년 간의 노예 역사 속에 끊임없는 반란이 점철되었고 일부 노예들은 머룬(Maroon)촌으로 도주하였다. 결국 1831년 백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섬 전체의 반란이 일어났다.

한편, 설탕 수출로 인한 진짜 부는 영국에 축적되었다. 유럽에서 설탕을 판매한 수익은 유럽에 거주하는 농장주들에게 돌아갔으며 식민지에 남아 있는 농장주보다 유럽에 살면서 관리인을 고용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일이 빈번했다. 관리인들은 토지나 노예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윤 추구에 급급했으며, 진짜 농장주보다 더 잔혹했다. 많은 백인들은 기후와 위험한 노예들의 위협에 시달리기 보다는 식민지에서 수익을 가지고 유럽에서 거주하기를 바랐으며,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 2세대마저도 이를 선호하였다.

흑인 노예들도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노예제로부터의 도주라기보다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도주하였고, 카리브와 아프리카 사이의 대양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백인들과 가까이 살면서 혼혈아들도 태어났는데 이들은 노예로 나서 노예로 살았다. 백인인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백인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흑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민인 갈색 자메이카인 계층이 생겨났다. 18세기말에는 백인과의 비율이 2:1 정도로 늘었다. 이들은 부유했으나 초기에는 시민권이나 투표권이 없었다. 이들이 정치에 참여한 것은 1830년대 이후부터이다.

1832년 영연방 제국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된 노예들은 돈도 없고 토지도 없었다. 소수의 상인과 플랜테이션 농장주가 정치적 권력을 손안에 거머쥐고 통치하는 소수 독재 정치시대가 되었다. 이런 독재 상태에 대한 반발로 흑인 농부들이 봉기했다. 1865년 모란트 베이(Morant Bay)에서 반란이 일어나, 폴 보글(Paul Bogle)과 조오지 윌리엄 골든(George William Gordon)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듬해에는 자메이카 의회가 자진 해산함으로써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왕권 식민정부(Crown Colony government)가 들어섰다. 대다수의 자메이카인들은 권력에서 소외되었고 피부색과 인종에 의해 구분되는 두 개의 자메이카가 이어졌다. 흑인 농부의 봉기는 식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는 더욱 더 보수화되어 갔다(이미재 1997, 245). 사탕수수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흑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포르투갈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872년 수도가 스페니쉬 타운(Spanish Town)에서 킹스턴(Kingston)으로 천도되고, 1879년 자메이카 학회(Institute of Jamaica)가 문학과 과학, 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892년에는 무상 초등교육제가 제정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1957년에는 자메이카 자치 정부가 설립되었지만, 196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렉산더 부스타만테(Alexander Bustamante)의 지도하에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성취하였다.

현재 피라미드 같은 사회구조의 최상층에는 백인과 갈색 피부의 소수 엘리트가 있고 중간층에는 갈색 피부와 약간의 흑인 중상층이

있고 하층에는 대다수의 흑인 농부가 집단 저층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파나마와 쿠바에서 철새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및 영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II.2. 언어정책과 공용어

식민 정책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언어 정책이다.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식민 지배국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식민지의 언어 사용을 억압하고 식민 지배국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정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준적인 것으로 이상화하고 그 외의 변이형을 저급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배자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토착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카리브 지역의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스페인어권 국가들은 완전히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국가로 바뀌었다. 따라서 식민독립 이후에도 되찾을 토착어가 없었으며 스페인어 사용국으로 스페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에서는 영어가 500여 년 동안 지배어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의 제2언어이다. 이 언어는 행정과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수만이 이 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가 제2언어임을 아래의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메이카 교실 환경에서 타협이 가능한 것은 선생과 학생, 양자 모두 크레올어를 쓴다는 것이다. 선생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직면하는 언어적 갈등을 자신들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이해한다. 학생들은 ‘전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파트와어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영어는 배워야 해요. 영어는 스페인어처럼 제2외국어예요.’라고 호소한다(Bryan 2004a, 652).

이렇듯 영어가 아직도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메이카에 순수 영어 화자는 식민 초기부터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들과 흑인 노예들과의 접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중간 매개 계층이었던 하인 계층과 농장 관리인 계층은 제2언어 습득에서 보이는 불완전한 언어 모방의 양상을 보여서 영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못하였다.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민시대 자메이카의 주된 사업이었던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산업에 필요했던 노동력은 단순한 육체 노동자였다. 따라서 정교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었고 문맹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소수였던 백인 지배 계층은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도모할까 두려워 그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영어 학습을 장려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1892년이 되어서야 무상 초등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교육어로 영어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교사가 부족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교육 보급에도 격차가 커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낮아 영어 화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어를 이해하는 정도의 지식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

네 번째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지만, 영어 원어민 화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영어로 읽고 쓸 줄 아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만이 증가하였으므로 교육도 이에 치중하였다(Devonish 1986, 104-5).

다섯 번째는 노예 해방 이후 중·상층, 엘리트층, 특권층을 이룬 백인과 갈색 혼혈인, 그리고 소수의 흑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배 영역을 일반 대중에게 허용하기를 원치 않았고 영국은 자국으로 자메이카인들이 대거 이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영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사용하고 크레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구분된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어 보급의 확대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1957년과 1962년 교육 개혁을 하기 전에는 중등학교 교육은 영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으며 입학에 사회 계층과 피부색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Patrick 1992, 78).

여섯 번째는 최근 들어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대중의 지지를 원하는 정치가들이 크레올어의 사용을 두둔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표준 영어보다는 크레올어를 뒤섞은 영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반대로 자메이카 크레올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많이 있어왔다. 한 예로, 1999년 3월에 서인도제도 대학(University of West Indies)의 모나(Mona) 캠퍼스 학생들이 자메이카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크레올어를 공식어로 지정하자고 주장하였다(Vasciannie 1999). 그러나 크레올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는 크레올어가 일종의 ‘영어의 방언(dialect)’이고 ‘잘못된 영어(broken English)’로 하층민의 언어라는 사회적 믿음이 아직도 팽배하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레올어를 배우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영어를 배워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법조계, 교회, 정부, 사업에서는 모두 영어를 쓰고 크레올어 화자들은 농민이거나 노동자들로 사회의 하류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올어 학습과 사용은 의식적으로 기피되고 있다.

두 번째는 표준 철자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크레올어는 그 형성 초기부터 구어가 발전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표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교육과 보급에 어려움이 많다. 캐서디와 르페이지(1967)가 『자메이카 영어 사전』(*The Dictionary of Jamaican English*)에서 도입한 발음에 초점을 맞춘 표기 방식과 아담스(1991)가 『자메이카 파트와어의 이해』(*Understanding Jamaican Patois*)에서 소개한 기존의 영어 철자를 간결하게 표기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 (1) Well, I've never known much thing about my mother.
 a. *Wel, mi riili neva nuo much ting abot mi mada.*
 b. *Wel, mi really neva know much ting aboht mi mada.*
 (Adams 1991, 74-75)

(1a)는 캐서디와 르페이지(1967)식 표기로 언어학자들이 선호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져서 일반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반면에 (1b)는 아담스(1991)식 표기로 작가나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나 개인적인 기준으로 다양한 변이형들을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크레올어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쪽도 흡족한 철자 체계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언어를 행정어나 교육어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적절한 상태이다.²⁾

세 번째는 영어의 국제적인 위상 때문에 영어를 없애고 크레올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영어와 크레올어를 다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부담감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네 번째는 공용어로 크레올어를 인정하려면 먼저 철자 체계를 지정하고 모든 공문서와 교육 자료를 비롯해서 교통표지판까지 모두가 언어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의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III. 크레올어와 영어의 대립과 공존

언어는 지리적인 근접성, 인구의 이동 혹은 정치적인 압력 등의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다른 언어와 접촉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²⁾ 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아담스(1991)의 표기 방식으로 크레올어의 예를 표기한다.

상이한 둘 이상의 언어가 한 사회에 공존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언어 사용 현상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언어의 혼성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언어들이 병렬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이중 언어 혹은 다중언어 상황이다.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언어의 변화 과정이 이들 중 어떠한 진행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외적 요인, 즉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메이카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관찰되는데 본 장에서는 그 원인과 결과 및 연관된 다른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1. 언어 혼성

언어의 혼성 현상(Creolization)은 지배 집단의 언어와 여러 피지배 집단의 언어가 상이한 가운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드물고 여러 피지배 집단 간의 공통 의사소통 도구가 부재할 경우에 지배 집단의 언어를 답습해서 제3의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언어를 피진어(pidgin) 혹은 크레올어(creole)라고 하는데, 피진어는 언어 접촉으로 생겨난 제3의 언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크레올어는 이러한 피진어가 차세대 화자를 확보해감에 따라 언어의 제반 영역에서 보다 더 충실한 언어로 발전된 것을 지칭한다. 피진어와 크레올어의 예들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태평양 연안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자메이카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언어는 원주민이었던 아라와족, 즉 타이노족의 언어였다. 그러나 이 종족은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된 지 100여년 만에 사멸했으며, 그들의 언어 또한 사멸해서 현재의 자메이카 크레올어 형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자취로는 소수의 차용어와 지명과 음식명, 동·식물명, 자연현상명 등이 있을 뿐이다. 국명인 Xaymaca가 이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봄의 섬(land of springs)’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스페인인들의 식민지배 기간(1509~1655) 동안 아라와족들과 스페

인인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으로 일종의 피진어가 사용되었거나 이중 언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라와족들은 스페인 식민지 배자와 포르투갈인, 유대인, 다른 카리브 지역으로부터 노예로 유입된 원주민 및 서아프리카 흑인들과 접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용된 스페인어의 흔적은 지금도 Ocho Rios, Negrillo, Las Chorreras 등과 같이 많은 지명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국의 점령으로 영어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초기에 자메이카로 온 군인 출신의 영국인들은 서부 영국 방언과 아일랜드 방언 및 북부 방언을 사용하였다.³⁾ 아프리카에서 실려온 흑인 노예들은 만디고(Mandigo)어와 같은 아프리카어뿐만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가이나나 해안 지역에서 그 당시 사용되고 있던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레올어도 사용하고 있었다. 1674년에서 1688년 사이에 2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들이 유입되었는데, 자메이카의 피진어가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백인과 흑인의 구성 비율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1673년에는 백인 7,768명에 흑인이 9,504명이었던 것이, 1693년에서 1694년 사이에는 백인이 7,000명이고 흑인이 40,0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흑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Mordecai and Mordecai, 2001)

1700년에서 1808년까지는 화이트 오브 베닌과 콩고, 앙골라에서 끊임없이 새 노예들이 수입되었다. 새로 수입된 노예들은 기존의 자메이카 흑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크레올어를 배워나갔다. 이들은 영국인들과 거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자메이카 태생 백인들은 크레올어로 노예들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영어 인쇄물은 1718년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영어는 문어로 사용되게 되었고 많은 화자들이 문어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말은 크레올어를 하고 글은 영어를 쓰는 이중 언어 상황이 벌어졌다.⁴⁾

1832년 노예가 해방되자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크레올어는 도주한

3) 라야와 드코스타(1990, 15)에 이 당시 방언 지도와 카리브로의 이주민 유출 중심 향구가 제시되어 있다.

4) 한글 창제 이전에 말은 우리말을 쓰지만 글은 한자를 썼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

흑인들의 공동체인 머룬(Maroon)촌에서 보존되었다. 초등교육의 확산으로 영어 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주로 읽기와 쓰기에 치중한 교육이었다. 1940년대부터 루이즈 베넷(Luise Bennett)같은 시인이 이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 다른 여러 작가들이 영어를 간소화한 철자를 사용해서 크레올어를 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이 언어의 표준 철자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크레올어를 교육어로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제1 언어를 인정해 줌으로써 초등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영어와 크레올어의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휘와 발음 영역이다. 이미재(1997)는 어휘와 발음상의 특징으로 먼저 16세기와 17세기 영국 영어의 어휘와 발음의 보존을 꼽는다. 극소수의 지배자 또는 플랜테이션 주인이 쓰던 당시의 방언 영어의 발음상의 특징이 특히 모음에 고정되어 남아있다. 두 번째는 서부 아프리카어의 영향이 자음에 크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배 계층의 언어인 영어 어휘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영어가 언어 사용자의 본래 언어에 존재하는 음이나 유사한 음 또는 좀더 쉬운 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어 어휘와 비교해서 발음이 변한 경우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2) th의 경우 유성음은 /d/로, 무성음은 /t/로 대체되었다.

예) *bredda*(brother), *ting*(thing)

(3) 어두음 /h/가 탈락되었다.

예) *ouse*(house), *eat*(heat)

(4) 어말의 -er가 /a/로 단순화되었다.

예) *wata*(water), *modda*(mother)

(5) /r/ 음색이 없어졌다.

예) *bud*(bird), *gal*(girl)

- (6) /w/음이 어중에 첨가되었다.
예) *bwaay*(boy), *dawg*(dog)
- (7) 어말의 파열음 /d, p, t/가 생략되었다.
예) *fren*(friend), *cris*(crisp), *cyan*(can't)
- (8) /o/음을 /a/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예) *maskitta*(mosquito), *hat*(hot)
- (9) 이중모음 /ei/가 단모음 /e/로 변했다.
예) *tek*(take), *mek*(make)
- (10) 음운 전위현상을 보인다.
예) *flim*(film), *slandaz*(sandals)
- (11) /f/음이 /ch/로 쓰인다.
예) *Chewsday*(Tuesday), *vencha*(venture)
- (12) 중세 영어의 모음이 철자에 반영되었다.
예) *ef*(if), *hent*(hint)
- (13) 장모음 /a:/가 철자를 중복시켜 aa로 대치되었다.
예) *haaf*(half), *faass*(fast)
- (14) /j/음이 첨가되었다.
예) *yair*(air), *yerd*(earth)

아프리카어에서 오거나 아프리카어와 영어의 혼합으로 생성된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15) *baps*(immediately), *pickney*(child), *here*(diyah)...

크레올어의 구조와 문법에서도 영어와 차이가 나는 다양한 특징들이 관찰된다. 이미재(1997)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한다. 먼저 격(case) 표지에 있어서 영어의 목적격이 크레올어에서는 주격으로 사용된다. 예(16)에서는 영어의 1인칭 목적격인 Me가 주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3인칭에서는 Him이 주격으로 사용된다. 이는 아마도 영어 화자들이 피지배층이었던 흑인 노예들을 지칭하던 격이 목적격이었

기 때문에 이에 친숙해진 화자들이 이를 주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16) a. *Me ready areddi.*(I'm already ready.)

두 번째는 성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예(17)에서 크레올어의 'im은 영어의 him/her를 의미할 수도 있고 me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문맥으로만 파악이 가능하다.

(17) *See'im dere.*(See him/her/me there.)

세 번째는 복수 표지인 (e)s가 없고 예(18)에서처럼 they의 목적격인 dem을 명사의 뒤에 붙여 복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18) *de pickney*(the child) / *de pickney dem*(the children)

네 번째는 시제 표지가 없다는 것인데, 영어의 삼인칭 단수 표지인 -(e)s나 과거 표지인 -ed가 없고 be 동사가 생략된 형태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는 각각 (19a), (19b), (19c)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 a. *Him hab plenty money.*(He has plenty money.)

b. *You poas me letter?*(Did you post me a letter?)

c. *Tea mek wid bwilin wata.*

(Tea is made with boiling water.)

III.2. 언어 병용(Diglossia)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언어의 변화 과정의 두 번째 상황으로 분석한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상황은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면서 상호간의 언어를 학습하여 의사소통 대상에

따라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지역의 모든 화자가 해당 언어를 모두 다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드물며, 많은 개인차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언어 병용 현상이다(Ferguson 1959).

구체적으로 언어의 병용 현상은 한 사회에 두 가지 언어 혹은 한 언어의 두 가지 변종이 함께 사용되면서 이 두 언어가 사용되는 장소와 상황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서로 같은 장소와 상황에 사용되는 일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고급어(high language)나 고급 변종어, 혹은 저급어(low language)나 저급 변종어로 구분되며, 전자는 성장 후에 학교 등에서 배운 언어이고 후자는 가정에서 모어(mother tongue)로 습득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 현상을 보여주는 예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스페인어와 카탈란어, 스위스의 표준독일어와 스위스 독일어, 모로코의 고전아랍어와 모로코아랍어 등 세계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카리브 지역 내에서는 아이티의 표준 프랑스어와 크레올어의 경우와 푸에르토리코의 영어와 스페인어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메이카의 크레올어는 토착어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어가 되지만 영국 식민지배 이래 지배어가 영어인 관계로 영어와 항상 양립하는 구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적인 상황에서는 크레올어가, 공적인 상황에서는 영어가 사용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표준 영어는 교육과 문화의 언어로서 우월한 언어로 여겨지고, 반면에 크레올어는 열등한 언어로 멸시되어져왔다.

크레올어가 쓰이는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를 들 수 있고 영어가 쓰이는 상황으로는 교회의 설교, 의회 연설, 신문 사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뉴스 프로그램은 영어를 사용하고 애정드라마에는 크레올어가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유창한 영어의 사용이 요구됨으로써 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크레올어 화자들은 사회의 하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언어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 계층 간의 장벽이자 계층을 구분하는 잣대의 구실을 한다.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이 영어에 노출되면서 영어 사용이 점차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영어로 운영하는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크레올어만을 사용하는 화자가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브라이언(2004b)과 같은 학자들은 영어를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모국어 교수법이 아니라 제2언어인 외국어를 가르칠 때 쓰는 교수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에 대한 지식이 천차만별인 상태로 입학하게 되므로 영어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2언어로 다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영어와 크레올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II.3. 탈크레올어화

탈크레올화(decreolization) 현상이란 크레올화 현상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영어가 공식어인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어와 크레올어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표준 영어 교육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음운, 어휘, 통사, 전 영역에 걸쳐서 영어의 영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어에 가까운 언어로 전환하게 되고, 영어와 상이한 언어라기보다는 일종의 방언에 가까운 언어가 되는 단계를 일컫는다. 이 현상은 영어 화자와 크레올어 화자 간의 접촉의 증가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은 두 계층 간의 거리가 점차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Wardhaugh 1986; DeCamp 1977).

자메이카 크레올어의 탈크레올화 현상은 수리남의 크레올어들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메이카에서는 영어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크레올어가 영어와 분명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영어에

근접하고 있지만, 수리남에서는 크레올어들이 비록 그 생성 단계에서는 영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나라의 공식어가 네덜란드어인 관계로 영어와의 강한 접촉이 끊기면서 영어에 근접하는 탈크레올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Todd 1990).

탈크레올화 현상은, 다시 말하면, 크레올어에 영어를 뒤섞어 쓰는 현상이다. 이때 사용되는 변이형을 크레올 연속체(creole continuum)이라고 한다. 크레올 연속체는 크레올어의 일종으로 자메이카 표준 영어와는 유사도가 점점 높아져 상호 이해되는 언어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의 인용은 크레올어와 영어라는 양 극간에 다양한 형식의 연속체가 존재함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 (20) Mr. O'Connor is an English expatriate teaching in Jamaica. He meets one of his pupils on the road and asks for his brother.
 'Hello Son-son, where is your brother?'
 '*Im de a yaad sah. Im a nyam im dinna.*'
 Mr. O'Connor looks at Son-son blankly and asks again:
 'Wherer is he?'
 '*Mi se im de a yaad sah. Im a nyam im dinna.*'
 'A nyam' questions Mr. O'Connor.
 '*Yes sah, Im a est im dinna.*'
 'Oh I see, he's eating his dinner.'
 '*Yes sah. A so mi se. Im eating im dinna... Im is eating him dinna.*' (Hall-Alleyne 1981, 32)⁵⁾

상기 일화에 나오는 크레올어의 다양한 유형을 영어와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1) a. *im a nyam im dinna*
 b. *im a iit im dinna*

5) 브라이언(2004a, 88)에서 재인용함.

- c. *im iting im dinna*
- d. *him is eating him dinna*
- e. *he's eating his dinna* (Bryan 2004a, 88)

(21a)는 순수 크레올어라고 볼 수 있고 (21b), (21c), (21d)가 크레올 연속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단계가 진행 될 수록 영어와 유사도가 높아져 상호 이해 가능한 형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드캠프(1971)에서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크레올어와 표준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없고 언어적 연속체가 있다. ... ‘어설픈 영어’(bush talk) 혹은 ‘엉터리 영어’(broken language)로부터 교육받은 표준어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다양성을 보이는 변이형들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있다(DeCamp 1971, 350).

따라서 이론적으로 언어들 간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순수 크레올어 > 크레올 연속체 > 표준 영어”의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 크레올어나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자메이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레올어와 표준 영어 사이의 다양한 변이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력이 적은 하류 계층일수록 크레올어의 사용 비중이 높고, 반대의 경우일수록 영국 표준 영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한다. 즉, 사용언어가 화자의 사회 계층을 대변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김경희 2004, 455).

흥미로운 것은 많은 화자들이 스스로는 영어를 사용한다고 믿고 있지만 무의식중에 크레올어적인 요소들을 섞어 쓰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얼빈(2004)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메이카를 소개하는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에 나타나는 발음상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관찰 대상자들은 그들의 업무에 유창한 영어 구사가 필수적이어서 취업 시 영어 능력 평가를 기본적으로 거친 사람들이다. 이들의 영어에서 크레올어적 발음으로 영어의 captain/gather 등에서 [kja]/[gja] 발음이 관찰되고 culture/soldier

등에서 [tj]/[dj] 발음이 관찰되었다.

탈크레올화 현상은 크레올어가 표준 영어를 닮아가는 일방적인 변화의 과정을 이론화한 것인데, 모든 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셀즈(1989)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자메이카의 표준 영어 화자가 줄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신문의 사설과 독자 기고란 등의 언어를 분석한 결과, 표준 영어의 사용은 줄어들고 크레올어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Bryan 2004a, 648). 즉 크레올어가 영어의 영향 하에 위축되기 보다는 그 사용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있어서도 관찰된다. 영국식 표준 영어를 주장하기보다는 자메이카식 영어가 교육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의 목표어로 제시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교육과 고급 수준의 연수과정은 자메이카어의 다양한 변이형을 사용하는 원어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영국영어는 뉴스 매체에서만 간혹 볼일 뿐 직접적인 목표 변이형으로서는 퇴보하고 있다 (Patrick 1992, 81).

따라서 이제 자메이카에서 언어 연구는 영어와 크레올어를 이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크레올어의 다양한 변이형을 상층방언(acrolect), 중층방언(mesolect), 하층방언(basilect)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어에 가장 가까운 상류층의 방언이 상층방언이고 크레올어에 가장 가까운 방언이 하층방언이며, 그 중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중층방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언 층위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얼빈(2004)의 영어 발음 연구는 상층방언 연구라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으며, Patrick(2004)는 중층방언 형태구문론 연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III.4. 제3의 언어: 라스타어와 레게음악

라스타어(Rasta Talk)⁶⁾는 라스타파리즘(Rastafarism)⁷⁾이라는 종교에

서 사용하는 언어로 처음에는 수도 킹스톤의 가난한 흑인들이 사용한 크레올어로 발전하다가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요소를 가진 언어로 영어 어휘의 의미와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현재 급속도로 자메이카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언어이다. 중산 계층의 젊은이들은 라스타어(Rasta Talk)적인 요소들을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이는 이 종교어가 자메이카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으로써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라드(1983)은 라스타어의 특징을 간략하게 세 범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어휘이다. 예를 들어, chant는 원래 ‘찬송하다’라는 의미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다’라는 의미로 전의되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음운론적 함축을 띄게 되는 어휘이다. 예를 들어, *ublain*은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을 지칭하는데, 이는 서인도제도 대학이 런던대학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곳 사람들이 진실을 못 보는 맹인(blind)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ai/가 어두에 덧붙여진 어휘들이다. 크레올어의 1인칭 주격은 *me*인데 이는 식민시대에 주인이 노예들을 지칭할 때 목적격을 사용하다보니 노예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칭할 때 목적격으로 주격을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관례화되어 크레올어에 고착화된 것인데, 주체성의 상징으로 /ai/를 주격으로 회복하여 사용하고 *I and I*는 라스타추종주의자들을 지칭하며, *All is irie*라는 표현은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러한 라스타어는 크레올어와 자메이카식 영어뿐만 아니라, 이 양 언어 간의 동화 과정 속에 있는 연속체의 모든 변이형과 뒤섞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라스타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 이

6) 드래드톡(Dread Talk)이라고도 하는데 라스타어로 *dread*는 ‘라스타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즉 *im is a dread* 는 *he is a Rastafarian* 이다.

7) 1930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황제 라스 타파리가 황제로 즉위하자 자메이카의 가난한 민중들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으로 선포된 그가 ‘왕들의 왕’이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구세주,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했다. 사실상 아프리카 토착 신앙에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집트의 종교가 혼합된 이 종교는 자메이카인들에게 있어 완전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써 그들의 생활 자체에 스며들어 있다.

후 레게음악(Raggae Music)의 보급으로 인해서이다. 레게음악은 억압 받은 민중을 대변하는 라스타주의자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라스타어로 노래하는 음악 장르이다. 예를 들어, 이 음악 장르에서는 ‘바빌론’(Babylon)을 ‘교회나 국가 등과 같이 타락한 사회 체제’를 상징한다. 대표적인 음악가인 밥 말리(Bob Marley)의 「바빌론 시스템」(“Babylon System”)이라는 곡에서는 바빌론이 ‘날마다 아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표현되고 있다. 반면에 ‘시온’(Zion)은 “바빌론”의 반대말로 ‘자유와 평등이 있는 곳’을 상징한다. 밥 말리의 「라스타인의 이야기」(“Rasta Man Chant”)에서는 “나는 멀리 시온으로 날아간다. 집으로 날아간다. 어느 밝은 아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날아간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레게음악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해서 자메이카 정부와 정치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주시하고 있다. 일례로 자메이카 정부는 1996년 안토니 비(Anthony B)의 「로마의 화재」(“Fire Pon Rome”)라는 곡이 총리 후보들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가들을 국가적인 범죄자로 열거하고 있어서 라디오방송을 타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가수의 대중적인 인기를 깨닫고는 그를 후원해 주었다. 그 이후 정치가들은 레게음악이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 있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해왔다. 1997년 자메이카 노동당의 텔레비전 방송에 토니 레벨(Tony Rebel)의 「주는 내 곁에」(“Jah Is By My Side”)를 방송해 이 가수가 분개했다는 일화가 있다(Oumano 1997).⁸⁾

IV. 결론

자메이카에서 영어와 크레올어가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가를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영어는 도입 초기부터 대다수의 자메이카인들과는 괴리를 보이던 상류

8) <http://debate.uvm.edu/dreadlibrary/herbold.html>에서 발췌한 Stacy Herbold의 “Jamaican Patois and the Power of Language in Raggae Music”에서 재인용함.

층 지배계급의 언어였고 크레올어는 의사소통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크레올어는 구어로만 전수되었던 관계로 모든 문서 기록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교육도 영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대다수의 자메이카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인 크레올어를 글로 표현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글로 쓰는 영어를 말할 줄 모르는 비생산적인 상황에서 지내야 했다.

현재 자메이카는 영어도 크레올어도 아닌 또 다른 실체인 자메이카어를 형성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메이카어는 영어에 기반을 두면서 아프리카어적인 요소와 유럽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며 문화적인 요소까지도 함께 융합되어 녹아있는 혼종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표시 체계도 단순히 영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재구성하고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메이카인들 자신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고 혹은 크레올어라고 생각하지, 양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뒤섞어 쓰고 있다고 인정하기를 꺼린다. 과도기로 아직 언어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북미의 지속적인 영향과 세계화의 대세로 언어외적인 요인들이 이 언어가 영어와는 상호 이해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메이카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예측으로 인해 영어의 한 방언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 밖의 카리브 지역에 대해서 자메이카어는 화자수면에서 우세하고 사전 편찬 등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어 카리브식 영어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이 언어가 실질적으로 카리브 영어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영어권이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호주 영어로 대변되었다면 앞으로는 카리브 영어도 하나의 글로벌 방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In Jamaica English is the only official language, but it isn't used among family members, friends, etc. by the majority of Jamaicans. In schools it's considered as second language for the pupils. On the contrary, Jamaican Creole, known as "Patois", is the language which is used in those contexts, although it's subordination to English started from its formation in early 16th century and has persisted to the present day. This language and its position in society reflect the brutal history of Jamaica as a British sugar colony until Independence in 1962.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causes of why English has been used in limited contexts in spite of more than 500 years of it's domination and why recently Jamaican Creole is gaining more power as language of identity. To describe more precisely Jamaican Creole and its relation with English, we revise historical aspects, as well as linguistic phenomena like creolization, dicreolization, diglossia, etc. In the process we have observed that not only linguistic factors but also extralinguistic factors like politics, economy, education, religion and culture have influenced in the linguistic situation, making it more hybrid.

Key Words: Jamaican Language, Jamaican Creole Language, Patois, English and Creole, Linguistic Hybridity / 자메이카어, 자메이카 크레올어, 파트와어, 영어와 크레올어, 언어적 혼종성.

논문투고일자: 2005. 04. 18

심사완료일자: 2005. 05. 02

게재확정일자: 2005. 05. 20

참고문헌

- 김경희(2004), 「카리브 해 지역 크레올어의 현황과 전망 - 아이티, 자메이카, 수리남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4, pp. 437-466.
- 이미재(1997), 「자마이카 언어 'Patois'에 대하여」, 언어학, No. 21, 한국언어학회, pp. 241-263.
- Adams, Emilie(1991), *Understanding Jamaican Patois: An Introduction to Afro-Jamaican Grammar*, Kingston: LMH Publishing Ltd.
- Bryan, Beverley(2004a), "Language and Literacy in a Creole-speaking Environment: A Study of Primary Schools in Jamaica",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Vol. 17, No. 2, pp. 87-96.
- Bryan, Beverley(2004b), "Jamaican Creole: In the process of becoming",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7, No. 4, Special Issue, pp. 649-656.
- Cassidy, F. & R. LePage(1967), *Dictionary of Jamaica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ig, Dennis R.(1971), "Education and Creole English in the West Indies: some sociolinguistic factors", in Dell Hymes (ed.),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of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1-392.
- DeCamp, D.(1971), "Towards a generative analysis of a post-creole speech continuum", in Dell Hymes(ed.),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of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9-370.
- DeCamp, D.(1977), "The Development of Pidgin and Creole Studies", in Dell Hymes(ed.), *Pidgin and Creole Linguis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Devonish, Hubert(1986), *Language and Liberation: Creole Language Politics in the Caribbean*, London: Karia Press.

- Ferguson, C.(1959), "Diglossia", *Word*, No. 15, pp. 325-340.
- Hall-Alleyne, B.(1981), "Linguistic notes", *Jamaican Journal* No. 45, pp. 31-33.
- Irvine, Alison(2004), "A Good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Phonological Variation in The Jamaican Acrolect", *Journal of Pidgin and Creole Languages*, Vol. 19, No. 1, pp. 41-76.
- Lalla, Barbara & Jean D'Costa(1990), *Language in Exile: Three Hundred Years of Jamaican Creole*, Tuscaloosa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Mair, C.(2002), "Creolisms in an Emerging Standard: Written English in Jamaica", *English World-Wide*, Vol. 23, No. 1, pp. 31-58, Lond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ordecai, Martin & Pamela Mordecai(2001), *Culture and Customs of Jamaica*, Westport(USA): Green Wood Press.
- Oumano, E.(1997), "Reggae Says No to 'Politricks'", *The Nation*, No. 265, pp. 32-34.
- Patrick, Peter Lumpkin(1992), *Linguistic Variation in Urban Jamaican Creole: A Sociolinguistic Study of Kingston*, Jamaic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_____ (2004), "Jamaican Creole Morphology and Syntax", in Bernd Kortmann et al.(eds.), *A Handbook of Varieties of English, Vol. 2: Morphology and Syntax*,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Pollard, Velma(1983), *Dread Talk: The Language of Rastafari*, Jamaica: Canoe Press.
- Shields, Kathryn(1989), "Standard English in Jamaica: A case of Competing Models", *English World-wide*, Vol. 10, No. 1, pp. 41-53.
- Todd, Loreto(1990), *Pidgins and Creol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sciannie, S.(1999), "The Official Language of Jamaica", *Caribbean Today*, No. 10, March 31.
- Wardhaugh, Ronald(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asil Blackwell.